

# 이렇게 들었다

## 건강한 성문화

### “생사는 음행으로부터 비롯”

“연상의 여인은 어머니로 알라. 중년층의 여인은 누이로 알라. 젊은 여인은 딸로 보라.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불제자들은 젊은 몸이면서도 육정에 끌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있다.” <본생경>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음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애욕으로 그 근본을 삼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은 끝없는 과거로부터 온갖 애욕의 바림이 불어오기 때문에 윤회가 있다.” <원각경>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8월 30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9명의 성범죄자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판보·정부청사 및 16개 시도 분청 게시판에 공고했다. 이번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 얼마나 비열어져 있는지 알게 해 준다.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을 물질화라고 한다면 인간을 물질화한 가장 적나라한 예가 성의 상품화이다. 인간이 성의 노리개로 전락되어 금전적으로 매매되고, 특히 초중학생을 추행하고 2-3세 유아까지 육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같은 범죄자들의 문제는 성윤리의 회복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인간 심성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성문화를 위해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부처님께서 “모든 생사는 음행으로부터 비롯된다”며 출가자에게는 성행위를 금지하고, 재가신자들에게는 건강한 성문화를 갖도록 불사움을 강조했다.

비구 250계를 보면 거의 반이 남녀관계에 관한 것이고, 비구니 348계도 특히 남녀관계에 관한 규정이 많다. 곧 구족계의 과반수가 남녀의 정욕에 관한 계율이라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이 음행의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출가자들에게는 어떠한 경우의 음행도 해서는 안된다”고 한 반면, 재가신자들에게는 불사만을 강조했다. 즉 자신의 처 이외에 일체의 여인을 범하는 것, 자기 남편을 제외한 모든 남자와의 음행을 사음으로 정의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경계한 음행은 크게 자음(自淫)과 교인음(敎人淫)으로 나뉜다. 자음은 자신이 스스로 음행을 범하는 것이고, 교인음은 다른 사람에게 음행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강간, 강제 추행, 매매혼 앞선 등 이번 신상공개에서 나타난 성범죄 유형은 모두 이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건전한 성문화를 가지면 어떠한 공덕이 있을까. (십선업도경)에서는 불사율을 잘 지키면 모든 번뇌의 감각기관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시끄러운 비난을 길이 여의고 △세상이 다 칭찬을 하며 △정숙한 배우자를 얻게 되는 네 가지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화엄경)에서는 사음의 죄를 범하면 삼악도에 떨어진다'고 정의한 다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정숙하지 못한 배우자를 만나거나 뜻에 맞지 않는 가족을 만나게 된다”고 하였다.

김종근 기자

# ‘엽기문화’ 청소년들 왜 열광하나

## 물자 세상보기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스스로 안다. 선과 악 그리고 진실을 가리는 능력은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진실이 흔들리고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뤼젠이 인간 세상에 아노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것은 가치관의 혼란을 뜻한다. 가치에 대한 생각이 뒤바뀌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면 우리 사회는 대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방심하고 있다가는 천재(天才) 이상의 인재(人傑)도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이다. 이미 아노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엽기 문화가 한 징후다.

요즘 모든 매체가 엽기적인 내용으로

승부를 건다. 엽기적이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언어 속에도 ‘엽기’라는 단어가 들어 가야 신세대인양 인정받는 이상한 유행병에 걸려있다.

엽기라는 것은 ‘기괴(奇恠)한 것이나 이상한 일에 강한 흥미를 가지고 찾아다니는 일’이라고 국어사전은 설명하고 있다. 엽기 본래의 뜻은 특별한 취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엽기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변태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 폐해성이 심각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특징은 문화를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문화 속에 빠져 그것을 생활화 한다는데 있다. 그러니까 엽

### 폭력적·변태적 성향

### 가치관 혼란 아노미현상

### 자기만에 불성 찾도록

### 청소년 포교 더 관심을

기 문화는 우리 청소년들을 그야말로 엽기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반란이 일어나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득보처럼 자랐다. 학교 폭력은 교사를 폭행할 정도로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가정에서도 청소년들은 부모의 보호를 거부하고 패륜아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부모를 구

타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그리 놀라운 일이 되지 않은지 오래다. 사회에서도 청소년 성매매가 성행할 정도로 변태적이다.

이렇듯 사회 전반의 문화가 도덕과 규범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 현상을 엽기 신드롬, 더 나아가 엽기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엽기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우병이 아직도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데 공우병의 원인은 초식성 동물이 육식 사료를 먹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필자는 오늘 우리 사회의 엽기 문화를 ‘공인병’이라고 생각한다. 한창 유행인 엽기를 한꺼번에 없애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래의 미의 엽기로 엽기 유행을 선도에 나갈



방귀희 방송작가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패러디나 비판, 유머, 개사 등의 형식을 이용해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는 명랑 엽기 문화는 문화를 풍요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장려할 만 하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욕구를 예리한 비판과 상상력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자신과 사회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며, 그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 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불교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즉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다. 참 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선과 악이 무엇이며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습득할 수 있다.

# 독자의 소리

## 집근처 불교유치원 없어 결국 타종교 유치원으로

○... 경기도에서 살다가 충남 천안으로 이사한 지 세 달 정도 됐다. 이사하자마자 6살 난 큰아이가 다닐 유치원을 찾아 다녔다. 그러나 인근은 물론 자동차로 20여분 거리 안에서도 불교계 유치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아파트 입구에는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하나 있었는데, 하는 수 없이 큰 아이를 이곳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유치원 원장은 아이 신상 카드에서 불교라고 적힌 가족의 종교를 보며, 식사 때마다 어린 가끔씩 종교와 관련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귀찮겠느냐고 물었다. 주변에 유치원이 없는 처지에서 달리 보낼 곳도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괜찮다고 말했지만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요즘에는 도심에도 포교당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지역에서 몇몇 포교당만이라도 유치원을 운영한다면 불교계 유치원이 없어서 다른 종교단체 유치원에 보내는 일을 없을 것이다.

장경희 · 충남 천안시 신부동

## 교도소찬불가 발표준비 악기·악보집 등 부족

○...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는 현대불교 신문을 비롯해서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계 소식을 알 수 있는 정기간행물이 들어온다. 간행물을 보내 주시는 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린다.

얼마 전 본소의 불교회 회장으로 선출되 그나서 10월8일 본소에서 찬불가 발표 법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열심히 연습 중에 있다. 악대와 합창단도 구성해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의욕이 이곳 법우들 사이에서 넘쳐난다.

하지만 악기와 악보집, 찬불가 자료 등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연습에 임하는 법우들을 볼 때면 회장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같은 불자로서 자랑스럽기도 하다. 늘 후원해주고 격려해 주는 불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원주 교도소 불자회장 설산 · 원주시 원주체육국 사서함 87-984

## 중단내 빈번한 폭력 사부대중 모두 반성을

○... 요즘에 중단 내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매일 정기법회에 빠지지 않으면서 10여년을 넘게 신행생활을 해오다 몇 차례 중단의 폭력사태에 현열을 느껴 신행생활을 그만두었기에 폭력근절을 외치는 목소리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

그런데 7월22일 조계사에서 열렸던 ‘비폭력 평화 실현’ 세미나에 참석하고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70명이 넘는 방청객 중 스님은 불과 3-4명뿐이었다. 중단 폭력의 중심에 서있는 장본인이 스님인데, 어떻게 스님들이 이렇게 무관심한지 이해

할 수가 없었다.

재가자들도 중단 폭력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스님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마땅할 텐데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 폭력이 근절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등심 · 서울 종로구 인사동

## 기차서 자리양보한 스님 합장도 제대로 못했는데...

○... 부산에 사는 주부다. 얼마 전 연로하신 노모를 모시고 서울 친척집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 휴가철이라 좌석을 예약하기 힘들어 할 수 없이 입석으로 가야 했다. 열차 통과마다 배곡하게 차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노모는 열차가 출발한 지 10분도 안돼 힘들어하셨다. 어쩔 수 없이 신문지를 구해 통과바닥에 자리를 마련해 드렸다.

그런데 대구역에서 일부 사람들이 올라타고 그 중 한 스님이 노모가 앉아있는 곳 서너 발치 뒤에서 자리에 앉다가 노모 곁으로 다가와서는 저쪽에 앉으시라며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주었다. 그리고는 아예 다른 칸으로 가버렸다. 아마도 우리 모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몇 분이 지나고 보니 불자로서 스님에게 합장인사도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어디에 계신 스님이신지는 모르지만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박연순 ·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 기고

### “교육이 아프다” 마음의 약 처방 지혜 낼때다



서명석 동국대 강사 교육학

동해안의 경포대 바닷가 백사장.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붕붕카를 타고 온갖 소음을 터뜨리며 곡예로 모래 위를 질주하고 있다. 이 때 방송기자가 그에게 다가서서 물었다. “그렇게 타는 것이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소음 공해와 사고의 위험성을 주지 않을까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나만 즐겁고 신나면 되니까요.” 외 우리는 이 청년에게서 예고와 이기로운 등쳐진 자폐적 폐쇄화로 만을 보고 있어야 하는가.

지금-여기, 모든 것이 반성과 성찰적인 시간대. 여기에 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적어도 12년 이상 교육이라는 공적 제도 속에서 컸으니까. 그런 청년을 길러내고 있었다면 우리 교육은 부실하다. 아니, 만성적 질병을 앓고 있는 셈이다. 이런 청년이 교육에서 걸러지고 그의 생각이 타자를 배려하고 자신의 예고와 이기를 줄이는 교육의 참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제 제도교육에게 우리는 파산통지서를 배달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청년은 지금 예고증과 이기병을 앓고 있다. 이것은 마음의 병이다. 몸에 질병이 찾아들면 우리는 약을 먹는다. 그럼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약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 지금 우리에게게는 마음을 치료하는 약을 처방해야 할 시점이다. 이것을 불가에서 통상 명상이라 지칭하지만, 이 때의 명상은 그냥 눈감음이 아니다. 감으로써 나의 에고를 덜어내고 더 큰 나를 찾는 것이 그것이고, 그럼으로써 나의 이기를 세척하고 또 세척하여 타자를 배려하는 공간을 내 마음 속에 개설하는 일이다. 이를 줄여 마음공부라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용히 눈을 감고 나만의 부처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지혜와 자비라는 명상의 약을 만드는 그런 시간대.

#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표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은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출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트트해아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트트해아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순선식(2개월 50만원), 순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지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중구로(2개월 150만원), 유행관장(2개월 50만원), 유행원장

#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표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따미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표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중복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르몬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중복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순선식(松仙食)」, 「순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지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최초 한류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 제조 의료 총판 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정심심 울림